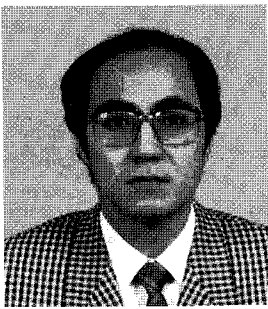


피부장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은 희 철

하므로 이로 인한 여러가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장에서도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업과 연관되어 또는 직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계절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피부질환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II. 하계절 피부의 생리적 변화 요인

하계절에는 고온으로 인하여 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땀이 체온을 하강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땀이 많이 분비되면 땀구멍이 막혀 땀띠가 잘 발생할 수 있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땀의 과다한 분비는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므로 무좀(일명 족부 백선증)과 완선 등이 흔히 유발된다. 고온 고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보호구의 착용을 기피하게 됨으로 인

I. 서론

피부는 우리몸의 가장 표층에 위치하는 기관으로서 외계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계절은 고온, 고습을 특징으로 하며 햇볕도 매우 풍부

하여 작업장에서 여러가지 화학적, 물리적 유해물질에 노출되므로, 직업적 화상, 직업성 피부염 등이 잘 발생될 수 있다.

하계절에는 곤충에 의한 교상(물림증)이 또한 잘 발생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피부에 발생되면 가려움증(소양감)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2차적으로 세균이 잘 감염되어 피부에 염증이 유발된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햇볕에 의한 일광 화상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직업성 물질 중 햇볕과 함께 노출되면 피부에 있어서는 광독성 피부염 등이 잘 유발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따라서 햇볕도 하계절의 피부 생리 요인 변화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III. 흔한 하계절의 피부질환

1. 땀띠

땀은 체온 조절이 중요하며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한관을 통하여 피부 표면으로 배설되고 있다. 하계절 땀의 양이 많아지면 한관의 입구가 막힐 경우가 많은데 가장 흔한 형태는 상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곳에서 막히는 형이다. 이 경우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혈관 확장으로 붉은색의 바탕위에 1~2mm 정도의 작은 구진(피부 표면에 솟아 올라오는 병변을 말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약물 발진, 바이러스 감염, 습진 등과 혼동될 수 있다. 땀띠는 심하면 가려움증이 매우 심하게 되므로 병원에 내

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치료로는 무엇보다도 신선한 환경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소 치료는 오히려 땀띠에 해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특히 연고류) 강도가 약한 스테로이드로션등이 간혹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려움증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의 단기간 투여를 수행할 수 있다.

2. 피부염, 습진

피부염은 일명 습진이라고 하는데 습진은 급성기에는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반, 수분 유출로 인한 부종이 생기며 아급성기에는 이들이 점차 감소하며 피부의 주름이 두터워지는 태선화, 색소 침착, 인설 등이 관찰되는 모든 질환을 총칭한다. 산업장에서는 외부 유해 물질에 의한 습진, 일명 접촉피부염이 자주 관찰될 수 있는 질환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계절에 있어서는 보호구의 착용을 기피함으로써 잘 발생된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치료는 원인 물질의 발견 및 이의 제거가 중요하나 많은 경우 원인 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 치료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즉 급성기에 진물이 흐르고 수포가 생기며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습포요법(wet dressing)을 사용하는데 보통 환부가 적을 경우에는 거즈 3~4겹에 약물(15,000의 $KMNO_4$, 1:20 BURROW'S 용액, 생리 식염수)을 푼 축여 20분씩 하루에 3~4회 노출 시킨다. 환부가 넓을 경우에는 약물을 세면기 또는 욕조에 부어 환부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습포법을 시행하면 1주일 내로 환부는 차츰 건조하게 되어 아급성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부터는 부신피질 홀몬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급성기를 지나 만성으로 가면 피부가 두터워지므로, 이 경우는 크림보다는 연고가 바람직하다. 부신피질 홀몬제의 전신 투여는 원칙적으로 피부 병변이 광범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전신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경우는 predni-

solone(30~50mg/하루)을 약 2, 3주간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 접촉피부염은 피부염의 원인물질에 추후 접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증상 치료로 3~4주 내에 현저한 호전을 나타낸다.

3. 백선증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는 주로 표피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는 각질층에서 기생하고 있다. 이를 일괄하여 백선증이라고 부르는데 피부에는 여러가지 균이 동일한 병변을 일으킬 수 있고 한가지 균이 여러가지 병변을 일으킬 수 있을 뿐아니라 항진균제 치료법의 원칙이 거의 같으므로 피부를 부위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피부의 부위별에 따른 백선증의 분류

부 위	종 류
발	족부백선, 무좀(Tinea pedis)
손	수부백선(Tinea manum)
몸	체부백선(Tinea corporis)
성기 주위, 살	완선(Tinea cruris)
머리	두부백선(Tinea capitis)
손, 발톱	조갑백선(Tinea unguium)

하계절에는 특히 족부 백선과 완선이 흔히 발생된다. 족부 백선은 일명 무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계절에는 일반인에게도 약 20~30% 발생하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족부 백선은 3가지의 임상 형태로 오는데 발가락 사이가 진무르며 인설(scale)이 벗겨지는 형, 발바닥의 일부에 수포가 잘 형성되며 수포가 마르면 구진과 인설이 발생하는 형 및 발바닥 전체에 염증이 없이 전체적으로 발바닥에 인설이 발생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완선은 지속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실 근로자나 학생에게 많은데 특히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에서는 음낭 밑에 습기가 잘 차므로 고온 고습을 좋아하는 곰팡이의 침범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무좀이나 완선의 치료는 국소 항진균제로 약 4~6주 정도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이에대한 면

역성이 없으므로 치유가 된 이후에도 예방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시판되는 국소 항진균제로는 대부분이 imidazole유도체로서 이들의 약효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혹 국소 항진균제가 잘 듣지 않은 경우는 항진균제의 전신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염증이 심한 무좀(진물이 흐르며 발적이 심함)의 경우는 항진균제를 즉시 사용하지 말 것이며 위에 제시한 피부염의 치료에서와 같이 습포법을 며칠 사용하고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항진균제의 자극으로 병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곤충 교상

하계절에는 독나방에 의한 피부염, 모기등 각종 곤충에 의한 교상이 발생한다. 곤충 교상은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소실되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러나 간혹 국소적으로 심한 부종등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나 전신 소양증이 심할 경우는 항히스타민제의 투여나 국소 부신피질 흡몬제를 습진 치료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화상

햇볕에의 급작스러운 노출은 일광 화상을 초래한다. 일광 화상의 경우는 급성 습진과 비슷한 치료를 하면 수일내로 증상이 소실된다.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물질 중 광선에 노출되면 따가움, 피부염등이 심하여 지는 경우가 있는데 타르, 피치등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잘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는 햇볕의 노출을 가급적 피함과 동시에 광선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는 햇볕에 의한 화상 뿐 아니라 하계절에는 보호구의 착용을 게을리 함으로써 열에 의한 경미한 화상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 1도 화상의 경우는 냉습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2도 화상 이상의 경우는 일정 기간 화상 치료를 받아야 감염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물질 중 광선에 노출되면 따가움,
피부염등이 심하여 지는 경우가 있는데
타르, 피치등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잘
발생한다**



등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6. 피부 감염

피부에 소양증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잘 발생된다. 피부에 오는 세균 감염은 대부분이 연쇄구균이나 포도구균이며 농가진이나 절종, 옹종(종기)등이 흔히 관찰된다. 농가진은 일명 부스럼이라고도 하며 작은 물집이 발생하여 이들이 곧 터져 딱정이가 지는 것이 특징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절종은 일명 작은 종기라 하며 한개의 모낭과 그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며 옹종은 몇개의 절종이 합쳐진 상태를 말한다. 이들은 semi synthetic penicillin의 단기간 투여나 경미한 것은 항생제의 국소 도포로도 쉽게 치유가 가능하다. 절종이나 옹종은 농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므로 농을 배출하려 할 때 시기의 선택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상 일반적으로 하계절에 관찰되는 몇가지 유형의 질환을 살펴 보았다. 작업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피부 질환이외에 계절과 무관한 여러가지 다양한 피부 질환이 관찰되므로 반드시 계절과 연관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약된 생각이므로 주의를 요한다.